

# 고용시장 봄바람 살랑...재정일자리 효과에 청년 취업도 늘어

### 지난달 취업자 수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 올해 들어 고용률 증가세...연초 반등에 주목

### 청년층·50·60대 모두 늘어...“일자리 사업 영향”

### 30·40대 취업 여전히 침체...청년 실업률 10% ↑

코로나19 확산 이후 쯤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에 모처럼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청년층 고용률도 회복되는 추세다.

지난해 고용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컸던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 허리층’인 30·40대 고용은 여전히 침체돼있고 산업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 회복”

14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지난 1월(2581만8000명, 57.4%)부터 2월(2636

만5000명, 58.6%), 3월(2692만3000명, 59.8%)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연초부터 취업자 수와 고용률 반등세가 이어지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특히, 재정 지출을 통한 일자리가 꽤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달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취업자는 113만9000명으로 전월 대비 6만3000명(5.9%) 늘었다. 같은 기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도 6만6000명(2.8%) 증가한 24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각각 9.0%, 7.6%로 더 커진다. 이

는 통계청의 산업별 취업자 통계 분류 항목 17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 일자리 관련 업종뿐 아니라 민간 일자리 증가도 고용시장 개선에 기여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24만7000명(계절조정 기준)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획재정은 “수출·내수 개선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면서 후행지표인 고용도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점차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 고용률·실업률 모두 뛰어...“경기 회복 개선성 있어”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세도 눈여겨 볼 만하다.

지난 3월 15~29세 인구의 취업자 수는 381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4만8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2.3%포인트(p) 된 43.3%다. 반대로 청년층 인구수는 13만6000명 줄었다.

아울러 60세 이상과 50대의 취업자 수도 각각 40만8000명, 1만3000명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보건복지업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며 “지난 2월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작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

화로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다소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고용 시장에서는 고용률(59.8%·0.3%p)과 실업률(4.3%·0.1%p)이 1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경기 회복의 신호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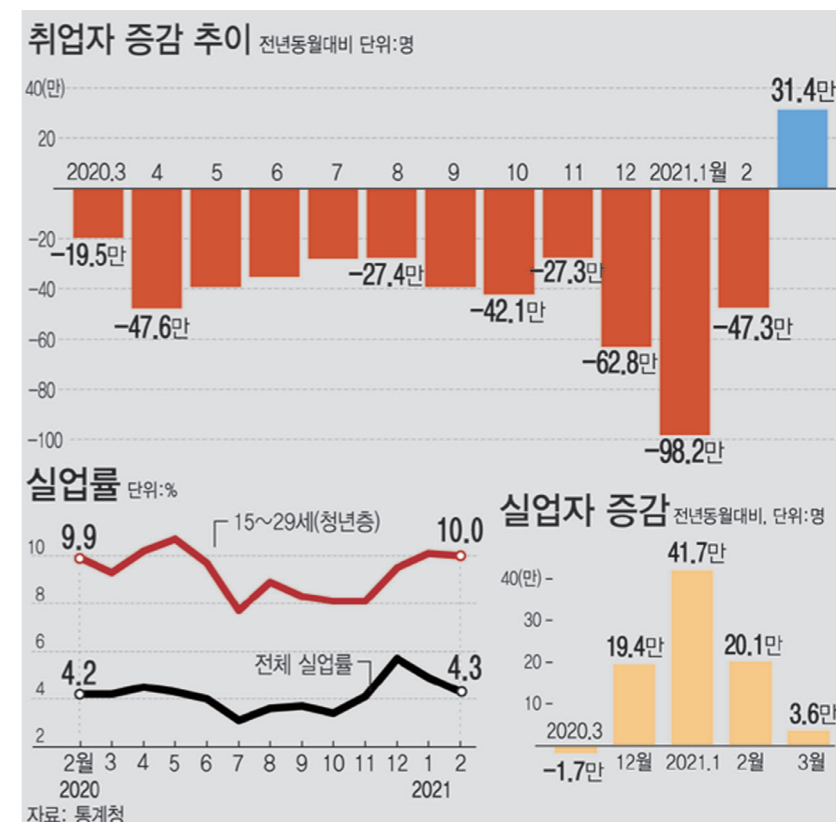
정 국장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구직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면서 실업률이 증가했다”며 “경기 회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불 대개연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 '4차 유행' 변수...추경 사업 등 신속 집행

단기 실적으로 고용시장 회복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대와 40대의 취업자는 각각 전년 대비 17만명, 7만5000명씩 줄었다. 청년 실업률도 아직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6만8000명, -4.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7만1000명, -5.9%), 숙박 및 음식점업(-2만8000명, -1.3%), 제조업(-2만6000명, -1.8%), 건설업(-1만1000명, -0.3%) 등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정도 고용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간 기업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 조짐을 보이는 정도 고용시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민간 기업 고용 창출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KT 친환경 가치소비 '제로 웨이스트 피크닉 세트' 출시. KT(대표 구현모)가 친환경 가치소비를 테마로 '제로 웨이스트 피크닉 세트'를 'KT샵'에서 오늘부터 출시한다. 이 상품은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소셜벤처 '트래쉬버스터즈'와 협업해 만든 피크닉과 캠핑을 즐길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다화용기 2인 세트다.

## 제주 관광객 코로나 이전 84.8% 회복...소비심리도 개선

### 소비자심리지수 97.7 4.3포인트 ↑

최근 제주지역에서 관광객 회복세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7.7로 전월 대비 4.3포인트 상승했다.

내국인 관광객 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월 중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개별 관광을 중심으로 내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지난 2월 상승폭(26.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3월 내국인 관광객 수는 88만5000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월(103만8000명)의 84.8% 수준이다.

3월 중 취업자 수도 관광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이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의 경우 코

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5000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67.7%로 전년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소비자심리 개선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이 부진하면서 높은 오피세를 보던 대다수 공업제품도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2.1% 올랐다.

주택 매매 가격은 아파트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0.1% 올랐다.

## 영암군 농·특산물전, 롯데백화점 강남점에 열려

### 오늘까지 직거래 장터 운영...‘기찬들영암몰’ 홍보도



영암군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영암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직거래장터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도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롯데백화점, 전라남도, 재경 광주전남향우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이며 이에

영암군이 참여하여 뜻을 함께했다.

지난 4월 10일에 열린 영암농특산물전 개장식에는 전동평 영암군수, 고천수 군의원, 김원식 서영암농협장, 양무승 재경 영암군향우회장을 비롯한 향우회원, 참여업체,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직거래장터에 영암군에서는 명품 특산물 무

화과 인절미, 무화과 요거트, 유기농 쌀(학이머문 쌀), 장미, 프리지아, 금어초, 영암 매력한우 등을 행사기간 동안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또한,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에게 지난 1일 개관하여 영암의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펍몰인 '기찬들영암몰'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영암 농특산물 구매 고객에게 유기농 생쌀 제공과 꽃나눔 행사도 함께 펼쳤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백화점 고객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영암 명품 농특산물을 개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대도시 직거래행사에 참여해 영암 생산의 기(氣)를 받고 자란 영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올리브영, 건강간식 매출 92% ↑ ...콤부차·망고말랭이 인기

### 영양분·칼로리 고려하는 MZ세대 중심 '웰빙 간식' 인기

원격수업, 재택근무 일상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간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영양분과 칼로리까지 고려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웰빙 간식'이 인기가 있다.

14일 CJ올리브영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반건조 곡물 간식, 건강 차 등 매출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올리브영 건강 간식 브랜드(PB) '딜라이트 프로젝트'는 올 초 리뉴얼 후 월 평균 매출이 30% 가량 급증했다.

특히 '쫄쫄한 망고말랭이'와 '쫄쫄한 군고구마' '바삭한 느타리버섯 칩' 등 식사대용 간식이 인기가 있다.

딜라이트 프로젝트는 패키지 전면 원료와 칼로리를 직관적으로 표기했다. 간식을 즐겨 먹지만 살찔

걱정을 놓지 못하는 MZ세대 니즈를 공략했다. 상반기 내 원물 고유 특성을 살려 블렌딩한 삼각 티 3종도 선보일 계획이다.

열량이 낮거나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간식도 인기를 끌고 있다. '엘로올로 카카오칩'은 카오넵스와 코코넛을 튀기지 않고 가공했다. 초콜릿과 비슷한 풍미를 내지만 96kcal로 다이어터에게 각광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올리브영에 입점한 무설탕 프로틴 초코볼 '딜로마켓 틴볼스'는 월 평균 10%씩 매출이 증가했다. 한 봉지에 닭가슴살 30g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주스나 차 등 건강 음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말린 자두인 푸룬을 원료로 한 '테일러 푸룬 농축 담뽀터'는 '패션 주스'로 입소문을 탔다.



OLIVE YOUNG

여러 기초화장품을 제치고 매출 20위권에 올랐다. 유산균을 함유한 발효 음료 '티젠 콤부차'는 고칼로리 탄산음료를 대체하고 있다. 팔과 호박을 섞어 우린 '티트리트 여우티'도 이너뷰티 트렌드를 타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김민정 기자

## 11번가 배송 업그레이드...자정까지 주문하면 내일 도착

11번가는 오늘 주문한 상품을 다음 날 받아볼 수 있는 '오늘주문 내일도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평일 자정까지 주문한 상품을 바로 다음 날까지 배송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에 주문한 물건은 화요일에 배송된다.

11번가는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제

공하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통해 빠른 배송 서비스를 완성했다"고 했다. 11번가는 지난해 12월 우정사업본부와 유통·물류 간 협력 서비스 확대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우편물류센터에서 11번가 판매자 상품의 입고·단도일과 일요일에 주문한 물건은 화요일에 배송된다.

11번가에 당일 자정까지 입고 상품

주문이 들어오면 발송 준비에 들어간다. 읍·면 단위의 촘촘한 배송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체국 택배로 전국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문 다음 날 바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오늘주문 내일도착' 상품은 11번가 '오늘배송' 탭에서 모든 상품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다.

기동채본부